

광주과학관서 피는 '7色 과학의 꽃'

과학축제 '컬러풀 사이언스'
21일~5월20일 7가지 테마전
호킹·미세먼지 등 주제 강연
동화구연·VR·마술 무료체험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에서 오는 21일 봄 과학축제 '컬러풀 사이언스'를 개최한다.

과학의 달 4월과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과학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콘텐트를 제공한다.

7가지 색을 배경으로 7가지 테마를 가진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에는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동신대 LINC+사업단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시립미술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전시물 등을 제공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 레이저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트리스타, 수소 전기차 융합 스테이션, 광양자비시설 모형 등 평상시에는 볼 수 없던 연구결과물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와 더불어 VR 체험도 가능하다. VR을 활용한 비행 시뮬레이터와 VR기반 운동기구는 무궁무진한 VR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놀이로 만나는 수학' 공간도 마련해 전시의 재미를 더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열린 '매직버블쇼' 공연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과학의 날을 맞이한 특별행사도 과학관 곳곳에서 진행된다. 21일과 22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어린이관에서 '동화로 만나는 미래자동차'가 개최된다. 미래의 아이들은 어떤 자동차를 탈지에 대한 궁금증과 상상력을 풀어낸 동화를 구연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해당 동화책을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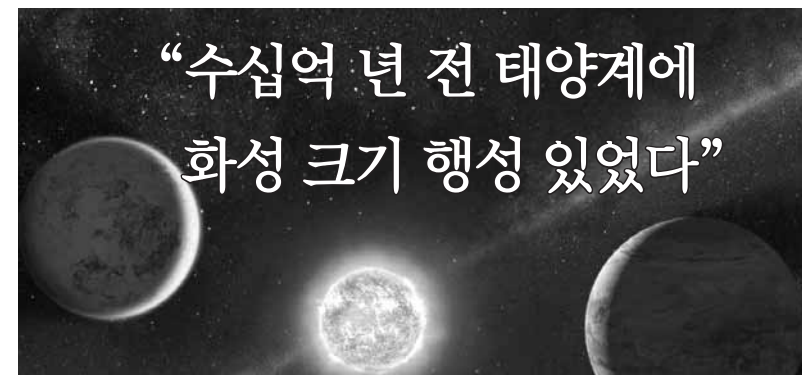
4월의 주말행사도 빠지지 않고 진행된다.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상상홀에서 '사이언스 별문쇼'가 진행된다. 22일에는 기획 전시실 입구에서 '바스볼 만들기' 행사가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시와 더불어 특별 강연도 함께 열린다. 21일에는 2시부터 김근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진행하는 '스티븐 호킹 추모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김근영 교수는 스티븐 호킹의 발자취를 되짚어 가며 그의 삶과 더불어 그가 추구해온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스티븐 호

킹의 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컬러풀 사이언스에 참가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960-617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수성이나 화성 정도 크기의 '원시행성'(proto-planet)이 초기 태양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폭발한 운석 조각들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운석 조각들은 '알마하타 시타'(Almahata Sitta) 컬렉션으로 분류됐다.

알마하타 시타라는 이름의 운석은 '유레일라이트'(ureilite)라는 흔치 않은 화합물 등을 갖췄다. 여기에는 매우 작은 크기의 다이아몬드 군(群)이 내포돼 있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이 원시행성은 수십억 년 전 생성됐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발표됐다고 UPI 통신과 영국 BBC 방송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은 아프리카 수단 북부의 누비아 사막에서 발견된 3.9m 크기의 운석 사이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 고해상도 현미경으로 화합물 분석에 나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분석에서는 크롬철광, 인산염, 철-니켈 황화물 흔적이 발견됐다.

외계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를 증명하는 첫 발견이라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연구팀은 "이는 이미 사라진 커다란 행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며 "현재의 태양계는 원시행성들의 잔재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몇몇 연구팀은 지난 수십 년간 알마하타 시타 컬렉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도 운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히 규명하지 못했다.

연구팀을 이끈 파랑 나비에는 "이번 연구 결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초기 태양계의 속성을 설명해 줄 더 많은 유레일라이트가 있다"고 말했다.

연습뉴스

레이저로 만들고 그리고... 일일 강사 나선 광주과기원 연구원들

GIST(총장 문승현·이화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소장 이병하)는 지난 17일 광주 첨단지역 초등학교를 초청해 '첨단지역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과학세상' 행사를 개최했다.

2007년부터 매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시작된 본 행사는 초등학교생들에게 빛과 레이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아초등학교와 신용초등학교 등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초등학교 과학교사 등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등광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직접 일일 강사로 참여해 홀로그래피, 레이저 그림 그리기, 상자 속 풍선 터트리기, 레이저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 레이저 경보기, 대구경 광학계 마운트 조립 체험 등 6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등광기술연구소 이병하 소장은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교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지난 17일 일일 강사로 나서 광주 첨단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들이 신기한 과학현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내

년에는 첨단지역뿐만 아니라 산간도서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AI·비트코인... '디지털의 오늘과 내일'

'...꿈꾸는 미래' 발간

지능을 갖춘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과학 대중서가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이지 아이티(Easy IT) 시리즈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 디지털이 꿈꾸는 미래'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408쪽 분량의 이 책에는 정보통신 기술(ICT) 산업에 얽힌 50개의 이야기가 담겼다.

ETRI의 최신 기술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집대성했다.

장학퀴즈에서 우승한 인공지능(AI) 엑소브레인 가상 인터뷰,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아닌가, 센서로 잡아내는 싱크홀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로 구성했다.

머리카락 2000개를 두 시간이면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지하철에서 수백명이 동시에 고화질 동영상 감상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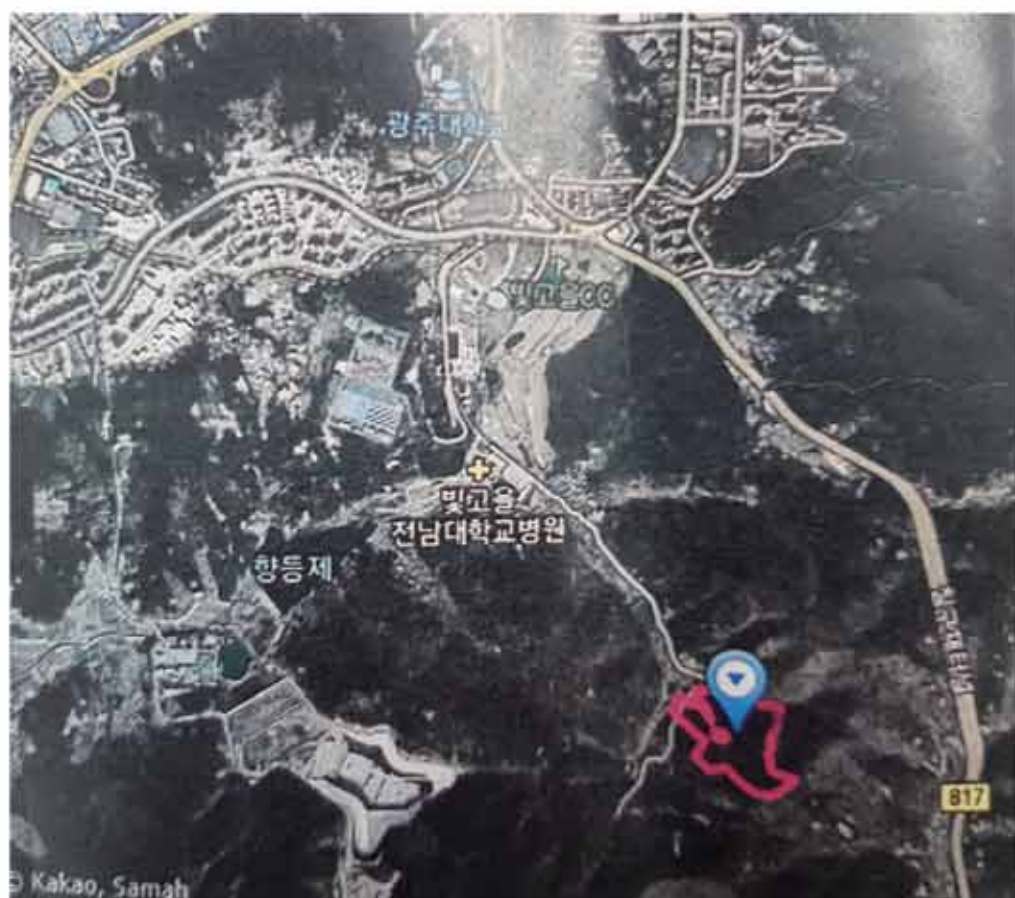
수 있는 시스템 등 ETRI가 다루는 기술을 상세히 실었다.

기술 독립을 꿈꾸는 정책 연구기관 연구현장을 실감 나게 그

리면서 정부출연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ETRI는 설명했다.

저자인 ETRI 정길호 성과홍보실장은 "한국의 현재가 세상의 미래가 되도록 하는 게 연구진 목표"라며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책으로 엮었다"고 말했다.

콘텐츠하사에서 출판한 이 책 가격은 1만8000원이다. 연습뉴스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8만원~~ - 급매 5만원 (일시불 원불조건)
- 문의. 010-6838-1230